

12. 강복과 출생 시의 고투 (35:1-29)

* 35장의 초점: 과거를 끝내는 사건

- 1)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서 (거기서) 복을 주었다” (35:9)
 - 야곱 단원 마지막의 본질적 메시지. 벤엘과 브니엘의 신헌을 하나로 모으는 사건.
- 2) 베냐민의 난산과 라헬의 죽음. (35:16-20)
 - 리브가의 임신을 떠올리게 함 (형제 간의 몸싸움을 예고)
 - 야곱은 속임수로 아버지의 축복을 얻어 냈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이 도덕적으로 변화를 겪은 후에야 발생.
- 3) 네 번의 매장을 보고: 야곱의 열두 아들로 대표되는 새로운 세대에 대한 기대로 과거의 시대가 끝났음을 증거.
 - 이방 신과 귀고리를 세겜 상수리나무 아래 숨긴 것은 과거와 가족의 부패를 상징적으로 매장.
 - 드보라-라헬(밧단아람을 대표), 이삭의 매장은 과거의 종결.
- 4) 연이어 나오는 다섯 장소: 야곱의 망명이 끝났음.
 - 헤브론: 가족의 중심지/ 세겜: 강간과 속임수와 살인으로 점철/ 벤엘: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
 - 에브랏-베들레헴: 밧단아람에서 일어난 야곱의 아내들의 다툼/ 헤브론: 이삭과 만남으로 하나님의 귀환 약속 성취.

1) 벤엘의 준비 (35:1-4)

- 1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벤엘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 2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 3 우리가 일어나 벤엘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 4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 35:1/ ‘일어나... 올라가서... 거주하며... 쌓으라’: 네 가지 명령. 벤엘의 첫 번째 신헌과의 관련(28:10-22).
 - 야곱에게 하신 약속에 따른 것(28:15). 야곱의 서원(제단)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 ‘거주하며’: 아브라함은 거주하는 곳마다 제단을 세움. 세겜의 거주는 통혼으로 이어졌을 것.
 -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은 정화를 요구하는 것이며 주님이 구체적으로 지시하신 유일한 경우.
- ‘에서의 낫을 피하여’: 예서는 35장의 인클루지오로 기능(1, 29절).
 - 야곱의 여행에 시작과 종결, 불화와 화해의 관념 - 야곱 이야기 전체를 앞뒤로 묶음(25장, 35장).
-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예서의 복수 위협에 결부시킴-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 35:2/ ‘제거’와 ‘정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예배를 요구하는 것에 부합.
 - 강간과 살인으로 인한 부정을 제거 - 그러나 살인은 의식으로 정결하게 하지 못함: 야곱은 전쟁 행위로 인식.
- ‘버리고(제거하라)’: * 구약에서 제의물을 제거하는 것.
 - * 가나안 정복 후 여호수아가 경고한 것의 전조. 영적인 갱신을 암시.
- ‘이방 신들’: 세겜 족속에게서 몰수한 물건이었을 가능성.
-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 *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포함하여 주님의 임재로 들어가기 위해서 의식상 정결이 필요.
 - 정결 의식에는 의복을 포함하여 몸을 씻는 것이 포함. 세겜에서의 약탈에 따른 필요.
-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기도하는 자가 치려야 할 관례.
- 35:3/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예서와 라반 사건을 가리킴.
 -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언(31:5, 7, 42)
- 35:4/ ‘그들이...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
 - * 세겜의 전리품일 가능성. 또는 이방 신상에 달려 있는 귀고리를 가리킬 것.
-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 * (상수리)나무: 가나안 예배에 전형적인 배경.
 - * 본문의 상수리나무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갖는 계시의 본질과 연관(삿 6:11; 왕상 13:14).
 - * 우상을 파괴하지 않고 묻은 이유: 상수리나무를 더럽혀 주님의 예배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장소로 만들려는 의도
 - 야곱은 세겜 시대를 닫고 벤엘의 약속과 서원의 신헌을 내다보게 됨.

2) 벧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 (35:5-15)

5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6 야곱과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벧엘에 이르고
 7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곳을 엘벧엘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낫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라
 8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으매 그를 벧엘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긔이라 불렀더라

- 35:5/ '그들이 떠났으나': 벧엘과 헤브론으로 가는 여정의 시작.
 '하나님이...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우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 35:6-7/ '루스 곧 벧엘에 이르고': 정복 시대에도 널리 사용된 옛 이름인 루스와 더불어 벧엘이라는 이름을 사용
 -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다니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와 감독을 받고 있음을 떠올리게 함.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라': '거기서'를 두 번 반복함으로 벧엘의 중요성 강조.
 - 벧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과 형성한 자애로운 관계에 대한 영구적 증거.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 이삭의 제단을 쌓은 행위에 대한 묘사와 어법이 동일.
 '엘벧엘': '벧엘의 하나님'- 장소와 더불어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라': '게시하다, 스스로를 보이다'
 -야곱이 조상 아브라함처럼 선지자였음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음.
- 35:8/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으매': 리브가의 사망에 대해 같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점은 의외.
 - 드보라의 죽음은 구세대의 종결을 상징.
 - 하란에서 리브가를 따라왔고 리브가가 하란으로 보내졌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드보라는 약속의 성취의 확증.
 '알론바긔': 격한 애도와 특별한 기념물의 건립은 드보라를 떠나 보낸 일로 느꼈을 심적 고통을 증명.

9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10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마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11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12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13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 35:9/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약속의 성취를 강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고': 브니엘에서 축복과 함께 이름을 바꿔주심을 언급.
- 35:10/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마는...':
 * 약속을 상세히 다시 말하는 것은 야곱에 대한 승인을 확증.
 -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약속을 새롭게 선포한 아브라함 내리티브와 평행을 보여줌(22:16-18).
 * 처음 이름을 주셨을 때의 강조점은 사깃꾼 야곱에서 축복 받은 이스라엘로 족장이 변화한 것에 집중, 반면에 여기서 문맥은 이 이름이 국가와 왕실에 대해 갖는 의의를 강조(11절, 23-26절).
- 35:11/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아브라함에게도 계시하신 이름. 야곱에 대한 이삭의 축복(28:3).
 '생육하며 번성하라' 이삭의 기도(28:2)와 맥을 같이 하지만 새로운 상황에 맞게 의미 또한 확대.
 - 이삭의 기도는 열두 아들로 실현. 하나님의 약속은 나라를 만들게 될 미래 세대에 관한 것.
 - 아브라함과의 연관성을 강조.
- 35:12/ '땅을 네게 주고...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스라엘 조상에게 내린 은혜를 강조.
 -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과 같은 내용으로,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는 언약.
 - 야곱은 아브라함의 단일 가족을 민족 이스라엘로 변모시킨 하나님의 계획에서 필수적인 인물이 됨.
- 35:13/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말씀하시던 곳'이라는 장소를 강조.

14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5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넬이라 불렀더라

- 35:14-15/ '야곱이... 말씀하시던 곳에': 다시 장소에 대한 강조.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두 차례 기름 부음- 처음 베넬의 신현과 서원을 떠올리게 함.
 * 서원의 성취: 십일조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세겜에 묻어둔 우상과 고리들이 자발적 십일조였을 가능성.
 '베넬이라 불렀더라': 베넬은 하나님이 국가 이스라엘과 이름이 같은 자에게 약속을 선포한 장소.

3) 베들레헴 근처에서 출생과 사망(35:16-20)

16 그들이 베넬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17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득남하느니라 하며

18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19 라헬이 죽으매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20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 35:16/ '베넬에서 길을 떠나': 베넬에서 떠난 이유는 헤브론으로 가서 이삭을 만나기 위함.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 베냐민이 출생한 곳과 라헬의 무덤이 있는 위치(베냐민과 유다의 경계로 추측).
 * 미래 세대에게 위치 기준(지금까지: 20절).
 * 라헬은 가나안 바깥에 살았지만 마지막 장소는 영원히 약속의 땅 안에 있었음- 하나님의 신실하심.
- 35:17/ '그가 난산할 즈음에': 난산(카샤)은 히브리 노예의 고된 노동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
 '네가 또 득남하느니라': '또 하나의 아들'- 라헬이 요셉의 이름을 지으면서 기도한 것이 성취되었음을 선포.
- 35:18/ '베노니라 불렀으나': '내 슬픔의 아들'. 아이를 낳을 때 라헬이 겪은 곤경을 떠올리게 함.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내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은 권력과 은총의 자리를 암시.
 * 아들들 중 유일하게 야곱이 지은 이름; 유일하게 가나안에서 태어남.
 * '고통'과 '자부심'은 야곱이 겪을 미래의 기쁨과 고통을 암시.
 * 라헬의 죽음으로 야곱은 요셉과 베냐민을 더 크게 보호 - 형제간 갈등의 원인.
- 35:19-20/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라헬의 무덤은 사무엘서에서 또 언급 - '지금'을 왕조시대까지 확대

4) 헤브론 근처와 헤브론에서의 사건들 (35:21-29)

21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22a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 35/21-22a: '에델 망대': 베들레헴과 헤브론 사이 경계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 빌하는 언제나 라헬의 여종으로 소개되었지만, 여기서는 '그의 아버지의 첩'으로 소개
 - 르우벤의 범죄의 본질에 대한 이해.
 * 르우벤의 범죄의 동기는 권력의 쟁취, 아버지의 자리에 대한 요구를 암시하는 상징적 행위로 추측.
 - 거부당한 어머니 레아 편을 들어 대담한 복수를 꾀함?
 * 야곱의 일부다처 혼인관계가 아들들에게 형제간 경쟁을 넘어 성적 경계에 대한 완화로 확대되었을 가능성.
 * 디나가 겪은 굴욕적 상황에 대한 야곱의 무관심 또한 방탕한 태도를 강화하는데 일조.
 '이스라엘':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범한 범죄의 지파적 함의를 강조
 * 르우벤을 향한 야곱의 책망은 르우벤의 후손의 미래에 영향을 미침(49:1).
 - 역대기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위가 르우벤의 특권이 요셉에게 넘어간 결과라고 증언(대상 5:1-2).
 * 장자가 아버지에게 수치를 준 일은 하나님이 명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준 후에 일어남.
 - 이스라엘에 대한 모욕은 곧 하나님에 대한 모욕.
 '이를 들었더라': 듣기만하고 꾸짖지 않은 것은 야곱의 권위가 떨어졌음을 보여줌.
 - 시므온과 레위의 반항도 르우벤의 월권에 영향을 줌.

22b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23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잇사갈과 스불론이요

24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나민이며

25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26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 35:22b-26a/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이어지는 요셉 내려티브에서는 아들들의 경쟁에 초점을 맞춤.
 - *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는 약속의 성취를 기대.
 - * 호의적인 목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야곱의 후손에게 믿음이 요구됨.
- '레아의 아들들은... 라헬의 아들들은...':
 - * 어머니들을 따라 아들들을 열거함으로써 라헬의 아들과 레아의 아들들 사이의 경쟁의 배경을 형성.
 - * '장자 르우벤은': 특권적 지위가 위태로워짐에 따라 형제 중에 누가 야곱을 계승할 것인지 의문을 일으킴.
- 35:26b/ '밧단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베나민은 가나안 태생.
 - 이 땅 바깥에서 태어난 세대(출애굽 세대)를 향한 격려.

27 야곱이 기랴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랴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28 이삭의 나이가 백팔십 세라

29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매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 하였더라

- 35:27/ '야곱이...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야곱을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었음.
 -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었더라': 야곱이 떠날 때 이삭은 브엘세바에 거주.
 - 이삭이 가족 묘지가 있는 헤브론으로 이주했다는 사실은 이삭의 죽음을 예상하게 함.
- 35:28-29/ '이삭의 나이가 백팔십 세라': 아브라함보다 5년 더 산 것이고 야곱보다 훨씬 장수.
 - * 아브라함, 야곱의 지위와 같은 수준의 관심을 얻지는 못하지만 가족의 생존과 약속의 보존에 필요한 인물.
 - '이삭을 통해야 네(아브라함) 후손이라 여겨질 것이다(21:12)'.
 -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 이름이 영원히 하나님 곁에 간직됨.
-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매 죽어':
 - * 이삭의 연대기는 끝나지만 실제 이삭은 요셉이 팔려간 후 12년을 더 생존.
-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사망 기사와 동일.
 - * 야곱을 아브라함, 이삭에게 연결하려는 저자의 노력.
 - * 에서와 야곱의 평화로운 관계는 곧 이어질 형제 간의 권력 투쟁과 대조를 이룸.
 - * 이삭의 죽음과 함께 야곱은 이삭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가나안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수행.
 - * 전환이 완료되고 다루기 힘든 야곱의 아들들 앞에 미래가 펼쳐짐.
 -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만이 가장 위험한 시기에 가족의 생존을 보장.